

늦게 부친 카드

때늦은 성탄카드와 연하장은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안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얼마 전에 버지니아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잘 손질된 은행 몇 꾸러미와 선물, 그리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새해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여 저와 아내를 염려하는 글로 빼곡히 채워져 있더군요. 잘 받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카드를 써 놓고도 부치지를 못했어요...” 바빴던 사연을 애써 설명합니다. 집 앞에 있었던 은행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마지막 은행이라는 말씀과 함께요. 전하지 않아도 될 카드를 선물과 함께 두 번씩이나 적으셨으면서도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 새해인사도 전하지 못한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부끄럽더군요. 일찌감치 카드를 보내셨던 메릴랜드의 어느 권사님은 답장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권사님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우리 헤브론 성도님들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연말과 연초에 카드와 선물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자 그대로 단 한 분께도 카드를 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교역자들을 포함해서요. 실은 11월 말에 성탄카드를 구입하고 주소 라벨까지 인쇄해 두었는데 결국 한 통도 쓰질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야 포기하고 책상 한 칸에 쌓아두었던 카드 박스와 라벨을 치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부담도 치운 것은 아닙니다. 편한 방법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카드와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2019년 성탄절에는 묵은 카드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에배순서

2019년 1월 20일

1부:7시/2부:9시/3부:11시 인도-1부:정진부 목사/2,3부:이찬우 목사

▲기 원 Invocation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참회기도 Repentance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개회찬송 Hymn	놀라운 그 이름 (새619)	
▲성서교독 R.Reading	2번 시편 2편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기 도 Prayer	1부: 이병기 집사/ 2부: 김언한 장로/ 3부: 김형곤 장로	
찬 송 Hymn	피난처 있으니 (새70/통79)	
봉 헌 Offering	2부, 3부: 남성중창	
▲봉헌기도 Prayer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환영/교회소식 Welcome	새교우	
성경봉독 Scripture	히브리스어 11:30	Hebrews 11:30
찬 양 Choir	1부: 어느 민족 누구게나 / 안수집사 2부: 사랑해요 주님 / 시온성가대 3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 할렐루야성가대	
설 교 Sermon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폐회찬송 Hymn	너 시험을 당해 (새342/통395)	
▲축 도 Benediction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표는 일어섭니다(Congregation shall rise)	

1월 예배 및 봉사위원

강 단 꽃	이번주: 권삼남	다음주: 박지호 전명산
친 교	이번주: 이원히	다음주: 전명산
1 부 찬 양	이번주: 안수집사	다음주: 시무권사
다음주기도	1부: 한성일	2부: 김종규
헌 금	1부: 조원화 이병기	3부: 이훈
	2부: 김성재 양정희 김정자A 김혜영	
	3부: 김희대 김영희A 황예민 정경숙 조금숙	
친 교 봉 사	이번주: 11구역 이문기 다음주: 12구역 이병기 2/3일: 13구역 차승렬	

금요찬양예배 [Friday Service]

1월 25일 금요일 오후8시

찬 양 성경봉독	예찬팀 인도 정진부 목사	
설 교	창세기 39:1~3, 21~23	
합심기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신성욱 교수
축 도	다같이 임철성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55]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이신형목사	서요셉목사	김태한목사	이찬우목사	정진부목사	임철성목사
마 5:1-12	마 5:13-20	마 5:21-32	마 5:33-48	마 6:1-18	마 6:19-34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되도록/사역자 를 위하여	환우들과 출타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 각 선교회를 위하여	몸이 아픈 자녀들 (작은별)가정/ 흩어져있는 자녀/ 가족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미국교회를 위하여	주일예배/주일 학교, EM예배를 위하여

중 보 기 도

1.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 1)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되도록
-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 3) 금주의 행사: 구약,이해하며 읽기반 개강(목) 기관장/팀장회의(금) 한국학교,구역예배(토)
2. 교우를 위하여
- 환우: 안주영 김성희 정정주 이현영 김원신 주연화 이동현 류순희 김영자 이은영 이성희 손성애 이호민 김상희 이가은 김복란 안종국 김미애
3.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 1)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화합
- 2) 북한의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 3) 선교사 및 선교단체: 조종우/조애영선교사, 미션사랑방교회, 산소망중도실명자선교회

2019년 헤브론 선교지

T국	배혜수	시카고 다민족교회	홍귀표
헝가리	김홍근	C국	서문안
과테말라	김찬수	T국	조종우/조애영
아르헨티나	파송 선교사 이광보	방글라데시	김종민
우즈베키스탄	윤누가	크리스찬비전선교회	허만춘
볼리비아	이건화	산소망 중도실명자 선교회	김재홍
나이지리아	이능성	중부개혁신학교	
페루	김성일	아시아 안환우회	
케냐	이사야	한인서로돕기센터(시카고)	신중균
네팔	이세정	시카고주빌리통일구교회	
레소토	김억수	몽골교회	Nuudel
겨자씨 선교회	박양성	미션사랑방교회	박미섭
고구마글로벌미션		아이오와다민족교회	서정호
		방글라데시	피터윤

1,2월 교회행사

1월	20일(일): 선교회 기도모임 25일(금): 기관장/팀장회의 27일(일): 학부모 기도모임	24일(목): 구약, 이해하며 읽기반 개강 26일(토): 한국학교 2학기 개강/구역예배
2월	2일(토): 성경대학(룻기/에스더)/학부모 세미나 4일(월): 교역자 세미나 11일(월)~18일(월): 선교자탐방(아르헨티나)	3일(일): 성경대학(룻기/에스더)/안디옥경로잔치 10일(일): 임시제직회(직원공천)/선교회월례회 14일(목): 시카고원로목사회/교회화장단 대접

교 회 소 식

1. 선교회 성경공부: 오늘 오후 12:40, 각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2. 선교회 기도모임 [참석대상: 담당교역자, 선교회 회장,부회장,선교부장]
오늘 오후 1:45,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3. 성경공부: <구약, 이해하며 읽기반>이 24일(목) 오전 10:00, 105호실에서 개강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장/팀장회의: 25일(금) 금요일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5. 한국학교 2학기 개강: 26일(토) 오전 9:30, 2학기 개강합니다.
6. 구역예배: 26일(토) 각 구역별로 모입니다.
7. 학부모 기도모임: 27일(일) 오후 1:30,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8. 성경대학: 룻기/에스더
[일정: 2월2일(토) 오전 7시, 2월3일(일) 오후 1시,
강사: 송병현 교수 (백석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9. 학부모 세미나: [일정: 2월2일(토) 오후 7시, 장소: Youth Group 예배실
강사: 임우민 교수 (백석 신학대학원 교수)]
- 10.2부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헤브론교회 등록교인 혹은 자녀로서 관현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 하여 2월10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Service Hour 제공)
[문의: 박우영 집사 847-208-5619 교회사무실 847-394-8454]
- 11.2018 헌금통계: 본당로비나 사무실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2.개역개정 성경 추가주문
개역개정 성경을 추가로 주문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13.임명: 할렐루야 성가대 소프라노-김영애, 테너-김경태, 알토-유인아
- 14.모집: 관리집사 (파트타임) [문의: 최성진 집사 312-320-7001]
- 15.교역자동정
John Kim 목사(19일~21일,집회인도) 임철성 목사(21일~22일,중부노회교역자수양회)
- 16.교우소식
출타-김대환/김정화, 손기원/손현주
- * 저울철에는 재철작업 관계로 야간주차(overnight parking)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환영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본당로비 안내석에 있는 등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